

300자로 **hip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영화 ‘해바라기’에 끼여버린 수프…“환경보호에 관심 달라”



2022년 반고흐의 영화 해바라기에 수프를 뿌려 실형이 선고된 환경운동가들. Just Stop Oil SNS

빈센트 반 고흐가 남긴 영화 ‘해바라기’에 수프를 끼얹은 영국 환경단체 ‘저스트 스톱 오일’ 소속 활동가 3명이 체포됐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반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 유화 두 점(1888~1889년 작품)에 오렌지색 수프가 뿌려졌다. 수프를 뿌린 ‘저스트 스톱 오일’ 소속 활동가 3명은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저스트 스톱 오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범행 당시를 촬영한 영상에는 “안 돼”라고 외치는 관객들의 만류에도 그림에 수프를 붓는 활동가들 모습이 담겼다.

해바라기를 소유하고 있는 내셔널 갤러리는 정밀 조사를 위해 두 작품을 곧바로 전시장에서 철거했다. 작품 자체는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스트 스톱 오일 소속 환경운동 활동가 2명은 지난 2022년 10월에도 반 고흐 작품에 토마토 수프를 끼얹는 퍼포먼스를 벌였다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비 플러머(23)는 징역 2년을, 안나 홀랜드(22)는 2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플러머는 “예술과 생명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가. 그림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한가, 아니면 지구와 사람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한가”라며 “추위에 시달리고 굶주린 가족들은 연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 그들은 수프 한 캔을 데울 여유조차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홀랜드의 변호인은 “정부는 기후 변화를 억제하려는 시도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며 “미래를 위해 싸우는 젊은이들을 기소하는 데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판결에 항소하기도 했다.

BBC는 이들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날 유화에 수프를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해당 단체는 수감된 동료 활동가를 ‘양심수’로 칭하며 “미래 세대는 이 양심수들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섰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고 법의 힘을 직면할 것”이라며 “화석 연료 회사의 임원들과 그들이 매수한 정치인들은 언제쯤 모든 생명체에 가하는 범죄에 책임을 지게 되는가”라고 물었다.

문화재에 대한 잦은 테러로 인해 ‘반달리즘’ 단체의 대표 격으로 통한다. 이들은 지난 6월에도 세계적인 문화재인 영국의 스톤헨지 거석에 오렌지색 페인트를 뿌려 공분을 산 바 있다.

#SnackNews #고흐해바라기수프 #김은지기자 #박지은편집디자인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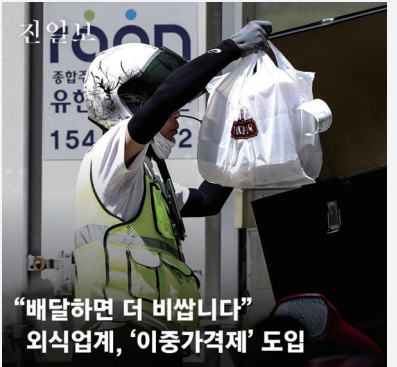
진일보



ACC서 만나는 ‘아라비아 상인의 바닷길 여행’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박물관 전시실 1)에서 내년 2월까지 ‘문순으로 열린 세계: 동남아시아 항구도시’가 개최된다. 항해술이 발달하기 전 과거 아라비아 상인들은 티베트고원에서 시작된 대륙풍과 인도양 해풍간의 온도차가 만들어내는 계절풍 ‘문순(monsoon)’을 이용해 바닷길을 오갔는데, 이번 전시는 문순을 따라 전개되는 동남아시아의 교역과 문화교류, 항구도시를 오간 이들이 만들어낸 고유한 삶과 예술작품 등을 선보인다. 특히 아시아 유물인 ‘누산타라 컬렉션’ 400점이 최초로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진일보



“배달하면 더 비쌌다” 외식업계, ‘이중가격제’ 도입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오프라인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달리하는 ‘이중가격제’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중개수수료 등 배달 비용 부담으로 이중가격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중가격제 시행 업체는 롯데리아(배달 시 단품 메뉴 700~800원, 세트 메뉴 1300원 인상), KFC(배달 시 버거 단품 300원, 치킨 개당 100원 인상), 맥도날드(배달 시 빅맥세트 1300원 인상), 버거킹(배달 시 와퍼세트 1400원 인상), 메가MGC 커피·컴포즈커피(배달 시 아메리카노 500원 인상), 한솔도시락(10월1일 인사가 공개) 등이다.

진일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서 ‘대규모 e스포츠대회’ 열린다

10월19일 광주 북구 비엔날레전시관에서 ‘2024 북구청장배 전국 아마추어e스포츠대회’가 열린다. 종목은 리그오브레전드, 이터널리턴, 발로란트 3종으로,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예선은 10월5~6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상금은 1위~4위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이다. 광주웹툰콘텐츠협회의 후원으로 대회 현장에서는 지역웹툰 전시 및 웹툰그리기 체험을 비롯해 추억의 오락실, VR게임존, 보드게임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대회에는 특별 현장 이벤트로 유튜브비자를 드림에 출전한 ‘막눈’ 윤하운 선수도 함께한다.

진일보



김대중재단 ‘DJ사저 매입’ 한다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전 의원이 DJ사저를 매도한 사실이 알려져 전국적인 우려를 받은 가운데, 김대중재단이 DJ사저를 매입하기로 했다. 다만 대금을 모금운동으로 마련할 예정이라 최종 매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사저를 대통령 기념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7월 거액의 상속세를 이유로 사저를 일반인에 ‘100억원 매각’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역사성 훼손’ 등의 비판을 받았다. 일반인 매입자는 최근 김대중재단과 만나 “되팔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